

경제

세계화 시대의 일본 경제



도쿄 증권 거래소
아시아 최대의 증권거래소
로서 2000개사 이상의 기업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Tokyo Stock Exchange

고도 성장 시대

일본의 전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파괴를 당하고 남은 산업 시설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1952년 점령군이 퇴각할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 소비가 미국의 약 1/5 밖에 안 되는 후진국이었다. 그 후 20년 동안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로서는 높은 수준의 개인 저축과 기업의 설비 투자를 들 수 있다. 확고한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력, 원활하게 공급되는 쌀 석유, 혁신적인 기술 및 민간 산업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간섭으로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은 국제 통화 기금

기금(IMF)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추진한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이룩한 급성장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으며, 1968년 일본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195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도시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비율은 34%에서 46%로 늘어나 산업 노동력도 증가하였다. 일본의 산업은 착실하게 경쟁력을 갖춰 1960년대에는 수출이 연간 비율 18.4%의 속도로 성장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1973년의 오일 쇼크에 영향을 받은 몇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상 수지가 흑자를 달성했다. 높은 개인 저축률을 바탕으로 활발한 설비 투자가 지원된 이 시대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고베 포트 아일랜드

컨테이너들이 배에 실려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 각국에로의 공업제품 수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경제 성장의 요점이었다.



예전에는 농업과 경공업이 일본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점차 중공업이 메인으로 변천하였다. 1960년 12월, 이케다 하야토 수상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7.2%의 실질 국민 총생산 성장을 목표로 한 소득 2배 증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경제 계획은 대성공이 입증된 산업 기반 확대에 목표를 둔 것으로, 실질 경제 성장을 10%를 달성하여 1968년에는 국민 총소득이 2배로 증가하였다.

성숙한 경제

1973년부터 1977년까지의 높은 성장률은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의 기본 경제 사회 계획(1973년 2월)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1973년 국내 거시 경제 정책으로 자금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과 국내 생산물 시장으로의 과도한 투자를 불러 일으켰다. 1973년 10월에 '오일 쇼크(석유파동)'로 알려진 에너지나 그 외의 소비재 가격 폭등 위기로 이어졌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이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엔화의 실력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변동 환율제도입이 실시되고 일본의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였다. 이에 따른 불경기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였으며 민간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였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10%대에서 평균 3.6%대로 추락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4.4%를 유지하였다.

1979년의 2번째 오일 쇼크는 일본의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에서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반도체 산업과 같은 새로운 발전 산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1970년 후반부터 컴퓨터와 반도체, 그 외 기술 및 정보 집약 산업들이 고도 성장 시대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도 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증가하는 국제 수지 흑자에 따른 무역 마찰은, 일본의 내수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경제 성장의 엔진인 내수 시장의 소비에 더욱초점을 맞출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거품 경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의 가치는 1988년, 1971년에 비해서 3배나 오른 달러 당 120엔으로 급등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였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내수 시장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는 1988년과 1989년에 급증하였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주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은행들은 자금 방출구를 부동산 개발에서 찾았다. 반면, 기업들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지가가 2배로 상승하였고 도쿄 닛케이 주가지수는 180%가 증가하였다.

1989년 5월, 정부는 토지와 같은 자산 가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자율의 증가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였다. 1990년대 말, 도쿄 주식 시장은 38%나 감소하여 3,000조 엔(미화 20조 700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고 지가도 투기의 절정에서 폭락하였다. 이러한 경기의 하강을 '거품 경제'의 '붕괴'라고 부른다.

1995년 이후의 경제

거품 경제의 붕괴는 1990년대 후반을 지나 2000년대에도까지도 이어진다.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작업에서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요와 엔화의 부분적인 가치 하락으로 인해, 1995년과 1996년에는 경제가 일시적인 개선 전망을

보이기도하였다. 그러나 1997년 소비 세율이 증가하고 정부 투자 활동이 감소하면서 주요 금융 기관의 파산 등 복잡한 요인으로 빠르게 경기가 침체, 악화되었다. 거액의 악성 채무를 떠안은 금융 기관들은 대출 정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장과 설비 투자를 축소하도록 압박하였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로 수출이 감소하여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수익이 감소하였다. 고용 급여와 임금도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감소하였다. 1998년의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8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공공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60조엔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추가로 금융 기관의 감소된 대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응급 조치로 40조엔을 배분하였다. 1999년도 국가 예산은 공공 공사 증가와 주택대출 소득공제 증액 등에 인한 감세를 포함한 내용이었다. 1999년 2월 초 일본 은행은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하여 0% 단기 금리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3월 정부는 75조 엔의 공공 자금을 주요 15개 은행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1999년 말과 2000년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몇몇 산업에서 세입 증가와 같은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의 경제는 국내 수요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및 일본 은행들이 안고 있는 악성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 등의 국내 문제와 미국 경제의 쇠퇴로 인한 일본의 수출 감소 등 국제적인 요인으로 다시 침체하게 되었다. 완전실업률은, 1990년에 2.1%였던 실업률이 2016년에는 3.0%로 상승했다.

경제는 2002년 초에 바닥을 치고, 느리지만 지속적인 회복기로 접어들어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10년 이상을 방황한 끝에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인 후유증들이 전반에 걸쳐 극복되었다.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02년에 8% 이상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까지 감소하였으며, 은행의 대출 능력도 회복되어 은행이 다시 재정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종식시키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 당시 2차 아베 내각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실행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일컬어지는 세 가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화살 “통화 팽창 정책”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현금 유통량을 증가시켜 디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화살 “유연한 재정 정책”은 정부가 약 10조엔의 예산을 사용하여 경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시책이다. 세 번째 화살은 “민간 부문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성장 전략”으로서, 그 목표는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 회사와 개인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실질 GDP가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실업자 수와 파산 기업 수가 감소했다.

일본사회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28.1%이지만 2060년에는 약 39.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

고령 인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각종 영향을 가져온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여성과 65세 이상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생산 연령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 간의 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그 외 사회 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19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호, 건설, 공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게 되었다.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생산품에 대한 일본 수입 비율이 1980년대 중반 이래로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는 50%를, 1990년대에는 60%를 넘어섰다. 이 사실은 일본 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하였다. 1980년 후반의 무역 마찰 문제로 엔고 타격을 받아 중요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은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에 생산 거점을 옮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거점에서 생산된 제품은 세계 각국 및 일본 내에 수출되어 현재는 일본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보다 늘어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 급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양은 17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의 대 중국 수출은 235%나 증가하였다.

2018년, 일본의 해외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1.4%로 증가한 반면에 미국의 비중은 15.0%로 감소했다. 디지털 가전과 자동차 관련 수출이 견고하여, 2007년부터 대 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일본의 대중 무역은 1988년 이후, 20년 이상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홍콩으로 수출한 대부분이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실태를 고려하면, 일중 무역 수출 베이스는 일본측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 무역은 1988년 이후, 20년 이상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홍콩으로 수출한 대부분이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실태를 고려하면, 일중 무역 수출 베이스는 일본측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무역 적자는 계속 감소해 왔다.

중국과 그 외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한 이유는, 제조업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인 국제 분업의 진전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의 회사들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여 건설한 생산 설비에 주요 상품(기계)과 중간재(부품 등)를 수출하고 완성된 상품을 다시 일본으로 수입한다. 현재는, 지식과 기술 집약형 생산 제조 공정을 전문화한 일본과 노동 집약형 생산 제조 공정의 중국 사이에 노동력의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과 그 외 개발 도상국들이 기술력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일본의 제조업은 지식 및 기술 집약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급증으로 인해 인바운드 여행자에 의한 소비가 증가하였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 숙박과 음식에 소비한 금액에서 일본인 여행객이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을 뺀 금액인 여행수지는 2015년에 196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가 되었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인접한 아시아나 나라 사람들이다. 중국, 대한민국, 대만 및 홍콩 출신의 일본 방문자 수는 2018년에 모든 외국인 방문자 수의 70%를 약간 넘었으며, 이지역이 차지한 국내 여행자 소비의 비중은 2018년에 70%를 초과했다.

아키하바라 전기상가(도쿄)

도쿄의 전자상가, 아키하바라는 일본의 하이테크 제품 구매자, 게임,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